

전치문과 도치문의 담화화용론적인 비교

박 원 경

(성균관대학교)

Park, Won-Kyong. 2003. A Discourse-Pragmatic Study of Preposing and Inversion in English.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3-1, 37-5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henomena of preposing and inversion in English from the discourse-pragmatic perspectives. We claim that different types of preposing can be unified to a single process of topicalization. We also show that diverse discourse functions of inversion can be subsumed under the 'linking' function with the prior discourse. It is followed a comparative discussion between preposing and inversion to find what similarities the two constructions share and what differences there exist between the two. It is concluded that the choice of a syntactic forms ultimately depends on the speaker's evaluation of the information status of the knowledge store of the hearer.

Key Words: preposing, inversion, topicalization, information status

1. 서론

영어에서 전치문은 어떤 구성성분이 앞으로 이동된 후 주어-동사의 표준어순을 지키는 문장이고, 도치문은 어떤 성분이 앞으로 이동한 후 동사-주어로 어순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 볼 수 있다.

- (1) These Cable Americans are no longer chained to the networks; faced with a cornucopia of programming choice, *choose they do!* (Birner & Ward 1998:4)
- (2) It is well known that Columbus made his first voyage to America in 1492. But *less well known* is his last voyage.

본 논문의 목적은 영어의 비표준적인 어순 중 동일하게 전치된 구성성분을 갖고 있는 전치문과 도치문에 대하여 그 기능을 살펴 담화문맥 내에서 각각의 구조들의 역할을 밝혀 포괄적이고, 원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보이는 것이다.

1절에서는 전치된 구성성분에 따라 동사구 전치, 명사구 전치, 부사구 전치, 형용사구 전치 등으로 구별하여 논의되었던 종래의 다양한 전치 현상들을 주제화 규칙으로 일반화시키고자 한다. 2절에서는 도치문의 담화상의 기능을 살펴보고 다양하게 제안된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명한다. 3절은 본 논문의 주된 핵심으로 전치와 도치 구문들을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 영어에서 어순의 차이가 어떤 의미 차이를 갖고 있는지 밝히고, 화자가 발화시 어떤 경우에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각각의 구조들을 선택하게 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전치문

영어에서 전치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명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형용사구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전치된 요소들은 모두 주제라고 보아야 한다. 주제는 '주어진(given)' 혹은 '구(old)' 정보이며, 주제는 '그것에 대하여(about)' 어떤 명제가 진술된다. 그러므로 주제는 이전 담화에서 이미 언급한 요소이거나,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지식(shared knowledge)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전 담화에 언급된 경우라도, 어떤 경우는 이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요소로부터 추론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주제는 그것에 대하여 어떤 명제가 진술된다는 점에서 뒤에 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Chafe 1976).

- (3) a. A: Here's your change.
 b. B: No, thanks. You can keep it.
 c. C: What if it was a nickel?
 d. B: A *nickel* I would keep. (Birner & Ward 1998:80)

위 대화에서 (3d)의 명사구 *a nickel*은 목적어 위치에서 전치된 것으로, 이전 담화인 (3c)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a nickel*은 ‘주어진’ 요소이다. 동시에 *a nickel*은 문두의 위치에서 *I would keep (it)* 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3d)의 *a nickel*은 이 문장의 주제이다.

전치된 요소가 전치사구나 형용사구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음의 예를 보자.

(4) Listen! I've put Mr. Jones in the GREEN ROOM and *in the GREEN ROOM* he stays. (Birner & Ward 1998)

(5) a. A : What do you think of John?

b. B : He's very successful, but a humble guy.

c. A : Successful, yes. But *humble* he's not.

(Birner & Ward 1998:72)

(4)와 (5)는 각기 전치사구 전치와 형용사구 전치의 예인데, 여기서도 전치된 전치사구와 형용사구는 모두 이전 담화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주어진’ 요소인 동시에 문두에서 뒤에 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도 모두 해당 문장에서 주제이다.

(3-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제는 이전 담화에서 이미 언급된 경우가 많다. 편의상 이전 담화에서 언급된, 주제에 해당하는 표현을 선행사(*antecedent*)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런데, 선행사는 (3-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이전 담화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6) I walked into the kitchen. *On the counter* there was a large book. (Birner & Ward 1998:20)

(6)에서는 전치된 주제인 (*on the*) *counter*와 동일한 요소가 이전 담화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신 *kitchen*이

발견되며, counter는 kitchen과 관계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 counter와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전 담화에 전혀 없다면 전치가 가능하지 않다. (6)을 다음과 비교해 보자.

(7) # I walked into the kitchen. *On the jacket* there was a large book. (Birner & Ward 1998:20)

(7)에서는 전치된 주제 (on the) jacket에 관계되는 요소가 이전 담화에 전혀 없고, 선행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kitchen도 jacket과는 의미상으로 혹은 화용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때문에 (7)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6)에서는 kitchen이 추론(inference)에 의해 ‘부엌에 있는 물건들’이라는 새로운 담화상의 개체(discourse entity)를 만들어 내고, 이에 counter가 전체와 부분(whole-part)이라는 의미상의 관계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6)의 kitchen은, 추론된 ‘부엌에 있는 물건들’을 통해, counter의 선행사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전치는 이처럼 추론을 통해 이전 담화와 연결될 수도 있다.

전치된 주제와 이전 담화의 선행사 사이에 성립하는 의미관계는 ‘전체-부분’외에도 ‘종류-예(type-token)’, ‘집합-구성체(set-subset)’, ‘큰것-작은것(greater/less than)’, ‘형-유형(type-subtype)’, ‘개체-속성(entity-attribute)’, ‘동일(identity)’ 관계 등이 있다. 다음을 보자.

(8) I set up my new terminal yesterday. *With the modem* came a pile of manuals I'll never read. (Birner & Ward 1998:231)

(9) A: Can I get a bagel?

B: No, sorry. We're out of bagels. *A bran muffin* I can give you. (Birner & Ward 1998:33)

(8)에서 전치된 주제 (with) the modem 은 선행사 my new terminal과 전체-부분의 관계에 있다. (9)의 경우, bagels 은 ‘아침식 사용 빵’이라는 개체를 추론에 의해 만들어 내고, 여기에 주제인 a

bran muffin이 ‘집합과 구성체’라는 관계에 의해 연결된다.

(10) G: Which staples should I use?

C: Use the half-inch ones. *The smaller ones* we never use. (Birner & Ward 1994, ex.9c)

(11) R: If there are fewer than five students [waiting in line] then I guess we can start. How many are there?

T: Five.

R: *Five students* we don't have to wait for. *More than that* we would.

(12) We had to buy this reading packet. *Twenty-two dollars* it cost.

(10)은 전치된 *the smaller ones*의 선행사 *staples*와 ‘형-유형’ 관계에 있으며, (11)의 경우 ‘큰것-작은것’ 관계를, (12)는 ‘개체-속성’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전치된 하나의 구성성분이 이전 담화와 연결되어 선행사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동일’관계도 있다.

(13) Facts about the world thus come in twice on the road from meaning, to truth: once to determine in interpretation, given the meaning, and then again to determine the truth value, given the interpretation. *This insight* we owe to David Kaplan's important work on indexicals and demonstratives, and we believe it is absolutely crucial to semantics. (Birner & Ward 1998)

이와같이 전치된 주제는 이전담화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거나, 화용론적으로 추론된 선행사를 통해 현 담화를 이전 담화에 연결시키며, 이로써 담화의 응집력(coherence)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제 동사구가 전치되어 생기는 동사구 주제화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 전치된 요소는 현 담화를 이전 담화에 연결시켜 주며, 이전 담화에 주어진 요소임과 동시에 현 담화가 성립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므로 주제라고 한 주장에 비추어 보면, 전치된 동사구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 예를 보자.

- (14) They expect that John will pass the test, and *pass the test he will* _____.

(14)에서 전치된 동사구는 이전 담화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로서 주어짐 성을 만족시킨다. 동시에 전치된 동사구 *pass the test*는 문두에서 *he will (do it)*이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 세계 혹은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 즉, ‘시험에 합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he will*은 *pass the test*에 대한 논평이 된다. 전치된 동사구가 주제라는 인식은 동사구 전치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담화 화용론적 기능(Ward 1990)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해 준다. Ward에 따르면 동사구 전치는 담화상에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담화 속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신념을 확인하거나 유보시키는 기능인데, 전자를 명제확인기능이라고 하고 후자를 명제유보기능이라고 한다. 명제 확인이란 이전 담화에서 언급된 명제에 대하여 화자가 그것이 사실이거나 사실로 드러날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명제 유보는 그것의 사실 가능성을 보류하는 것이다.

Ward는 명제확인을 독립적 명제확인, 양보적 확인, 정도 확인의 세 가지로 세분하였다. 독립적 명제확인이란 이전 담화에서 그 사실성이 주장되지 않은 명제, 혹은 전제나 함의가 되지 않은 명제에 대해 이것이 사실 혹은 사실이 아님은 확인하는 것이다. 명제확인 의 두 번째 유형인 양보적 확인은 이전 담화와 현 담화 사이의 의미적 대립이나 대조가 성립하는 경우, 이 대립관계 속에서 이전 담화에 포함된 어떤 명제의 사실성이 강하게 주장되는 경우이다. 명제확인 의 세 번째 부류는 정도확인이다. 이는 문장의 술어가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고,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이나 사태가 그 중 가장 높은 정도나 등급에 속하는 것임을 강조하는데 쓰인다. 이제 각각

의 예를 들어 보자.

(15) As members of a Gray Panthers committee, we went to Canada to learn, *and learn we did.* (Ward 1990: 748)

(16) Waiting in long lines to pay someone else more money than they seem to be entitled to is lunacy. *But wait in line they did.* (Ward 1990: 743)

(17) Asked what he thought about during today's race on a sultry day, (Tour de France winner Greg LeMonde) said: 'I didn't think. I just rode.' *Ride he did.* (Ward 1990: 744)

(15)는 독립적 명제확인 의 예로 무엇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디에 간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동사구를 전치하여 그것을 알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적 명제확인 의 경우에는 and가 연결사로 많이 쓰이며, (16)은 양보적 명제확인 의 예로 필요 이상의 돈을 지불하기 위하여 줄을 서는 것은 미친 짓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줄을 섰다는 것이다. 이처럼 (16)에서는 이전 담화와 현 담화 사이에 의미적 대립이 존재하며, 동사구 전치는 이러한 의미적 대립의 속에서 이전 담화에 포함된 명제가 사실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 때는 but나 yet가 연결사로 주로 사용되며, (17)은 정도확인 의 예로 이전담화 I just rode와 동사구가 전치된 문장은 동일한 일종의 동어반복(tautology)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구 주제화가 가능한 것은 이 문장의 술어 ride는 정도/등급의 개념을 나타내고, 술어가 의미하는 등급이 최상의 것임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즉, 달리는 행동도 가벼운 달리기에 서부터 목숨을 걸고 달리기까지 그 정도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17)은 LeMonde의 행동이 최상의 등급에 속함을 감탄과 함께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예들에서는 동사구 주제화의 기능이 주어진 명제에 대한 확인이었으나, 명제확인이 동사구 주제화 기능의 전부는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18) A: I just think our team knows how to win.

B: And *win they must*.

(19) Nobody thinks Jones can win the election, but *win he can* with a little help from his wife's estate, that is.

(20) After he finishes, he goes. And *go he should*.

(21) Very well. go ahead and leave, *if leave you must*.

(18-21)에서는 동사구가 적용된 절에서 조동사로 be, do, will 이 아닌 must, can, should가 사용되었다. 이 경우에는 의무(must 와 should의 경우)나 가능성(can의 경우)과 같은 양태(modality)의 의미가 논평, 즉 문장의 초점이 된다. 이 때 동사구 주제화의 기능은 명제의 확인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전치의 경우에서처럼, 주어진 주제에 대해 양태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 어떤 명제를 첨가하는 것이 된다.

논평에서 진행이나 완료 같은 시상(aspect)의 조동사가 쓰인 경우도 동사구 주제화의 기능은 명제확인이나 동사구가 나타내는 명제로 된 주제에 대해 시상의 의미를 첨가하는 것이 된다.

(22) Raskolnikov regretted killing the old woman, but *killed her he had*.

(23) One factor is the Iranian belief that there is no greater deed than to die for Iran. And *dying they are*, by the thousands.

위에서는 행동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라는 의미를 첨가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전치되어지는 전치문을 주제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통합하여 볼 수 있었다. 이제 도치문의

담화화용론적인 기능에 대해 살펴보자.

3. 도치문

Green(1980)은 도치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안하였는데, ‘실용’, ‘연결’, ‘강조’, ‘소개’ 기능이 그것이다. 그 각각의 예들을 살펴보고 네 가지 기능을 하나의 기능만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Green(1980)은 ‘실용’기능을 ‘지체/지연’기능이라고도 하였는데, 후치된 동사 뒤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을 알아낼 때까지 화자에게 언급할 시간을 주는 기능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스포츠 방송으로부터 발췌한 문장들을 ‘지체/지연’ 기능을 하는 예로 들었다.

- (24) a. *Underneath the basket* is Barbian.
- b. *Try to save it* was Shelly Tunson.
- c. *Down with the rebound* comes Roan. (Green 1980)

(24a)에서 Green(1980)은 도치가 중계자가 누가 농구 골대 아래서 있는 ‘30번 블론드 가드’인지 기억해 내거나 알아내는 동안 관찰되는 것(눈에 보이는 것)을 기술하도록 사용된 장치라고 주장하였다. (24b,c)와 같은 스포츠 방송에서 ‘trying to save it/coming down the rebound’의 행위자(agent) 즉, 그 행위를 한 선수를 알아내는데 중계자에게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그 경기의 사회자가 자신의 지각능력에 따라 선수의 이름보다는 그 선수의 행위를 먼저 인지하여 자신의 인지 순서에 따라 중계를 진행하거나, 경기의 흐름상 선수보다 그 선수의 경기내용(행위)이나 그 선수의 현재 위치가 더 두드러져 주목할만한 경우 이와 같은 도치를 사용하게 된다. 즉, 중계자가 어떤 선수가 ‘trying to save it/coming down the rebound’하는 것을 보았고 그 발화가 끝날쯤에 그가 ‘Tunson/Roan’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선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을 연기한 것은 자연스러운 감각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Green1980).

그러나 (24)와 같은 비표준적인 동사-주어 도치문은 덜 친숙한 정보 앞에 더 친숙한 정보를 놓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즉, 후치

된 신정보를 전치된 처소격에 의해 이전담화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Green은 '강조'기능을 담화구조내의 혼돈을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25)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Green 1980).

(25) Through the revolving doors swept Tom Pulsifer.

위의 예에서 후치된 명사구 Tom Pulsifer가 이전 담화에 언급된 정보를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현 담화에서 언급된 것은 아니므로, 전치된 구성성분에 의해 언급된 정보보다 친숙하지 않다. 도치는 이런 문맥에서도 후치된 구성성분을 이전 담화와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reen(1980)은 특히 (26)의 예들은 '연결'기능을 하지 않고, 그보다는 '소개'기능 즉, 후치된 명사구를 특정 장면에 배치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예로 보았다.

(26) a. In little white house lived two rabbits.

b. Into the consulting room of a fairly mad physician, whose name I somehow remember as Lucas Membrane, hurtled a haggard middle-aged woman, towing her husband, a psychotic Iarrikin about seven feet tall.

c. Down the dusty Chisholm Trail into Abilene rode taciturn Spit Weaver, his lean brown face an enigma, his six-gun swinging idly from the pommel of Moisshe, the wonder horse. (Green 1980)

위의 문장들은 이야기 형식으로 시작한다. 후치된 명사구가 담화 내에서 이전에 언급했던 것을 지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 친숙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6c)에서 작가는 Chisholm Trail이나 Abilene이 청자에게 친숙하다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26b)에서 'fairly mad physician'은 화자에게 이미 알려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도치문에서 관계절을 없애는 것은 담화 시작 부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Into the consulting room of a fairly mad physician hurtled a haggard middle-aged woman...). (26a)에서 후

치 된 명사구는 새로운 개체를 표현한다. 그러나 (26a)는 (27a)와 같은 작은 하얀 집에 대한 첫 문장이기보다는 (27b)와 같이 두 마리 토끼 이야기의 첫 문장으로 볼 수 있다.

- (27) a. *In a little white house lived two rabbits.* #It/The house was the oldest one in the forest, and it was in disrepair. All the animals in the forest worried that someday the house would come crashing down.
- b. *In a little white house lived two rabbits.* They/The rabbits were named Flopsy and Mopsy, and they spent their days merrily invading neighborhood gardens.

(26a)의 도치문은 다음 담화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후치된 구성성분과 연결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정보 전달량이 적은 처소요소로 시작한다. 그러나 (27)과 같은 두 문맥에서 ‘Two rabbits lived in a little white house’와 같은 표준 어순의 문장이 첫 문장으로 더 적절하다.

이와 같이 Green이 제시한 예들은 후치된 명사구를 이전 담화와 연결시키는 다음과 같은 ‘연결’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연결기능

후치된 명사구를 이전문맥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냈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와 연결시키는 기능.

Birner(1994)는 도치는 비교적 친숙하지 않은 논리적 주어 앞에 상대적으로 친숙한 정보가 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어에서 도치의 적절성은 결정적으로 전치 또는 후치된 구성성분에 의해 나타나는 ‘담화친숙성(discourse-familiarity)’에 의존한다. 담화 친숙성의 정도는 그 담화 내에서 이전 담화와의 연결 유, 무와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최근에 언급된 것인지에 의해 결정된다. 담화상 상대적인 구정보와 신정보를 결정하는 방법은 똑같이 이전 담화에 언급된 구정보들 일지라도 상대적으로 더 최근에 언급된 것이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이전에 언급된 것보다 더 친숙하다고 할 수 있

다. 즉, 더 최근에 언급되어진 발화가 구정보이고, 그보다 먼저 언급된 것이 신정보이다. 후치된 구성성분이 꼭 신정보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29) Yes, this is no ordinary general election. 'Evans is a Democrat; Daley is a Democrat. Different Democrats have different points of view about the city of Chicago and its politics,' Jackson noted. 'The war between forces within the party continues, and within our coalition.' *Standing in the middle of it all is Jesse Jackson.*

[Chicago Tribune, 3/6/89]

위의 도치는 Jesse Jackson에 대한 글의 마지막 문장이다. 사실상 Jackson 자신은 도치가 나타나기 전에 인용되었다. 그러므로 Jackson은 신정보로 생각될 수 없다. 그러나 Jackson이 두드러진다 할지라도 Jackson은 it의 지시대상보다는 덜 두드러진다. It의 지시대상인 그 정당과 연합내의 싸움이 Jackson보다 더 최근에 언급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Jackson이 비교적 상대적인 신정보(상대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정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구/신정보의 구별보다 담화내의 상대적인 친숙성(familiarity)의 형태와 정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도치문에서 동사 앞으로 전치되어 담화상 신정보를 나타내는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적은 처소 요소들이 전치되며 화자가 다음 담화에 그것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말하기 위해 이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27a)를 다시 살펴보자.

(30) In a little white house lived two rabbits. (=27a)

전치문의 전치된 구성성분은 통상 주제를 표현하지만 (30)과 같은 도치문의 전치성분은 결코 주제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형태의 도치문은 문학작품이나 이야기(story)체 문맥 외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처럼 도치문에서 후치 성분과 전치성분이

모두 담화상 신정보를 나타내는 경우는 이야기에서 주로 발견된다.

- (31) a. Hey, Sam - Did you hear the weird report on the evening news? # *In the basement of a department store are living a bunch of alligators.*
 b. Hey, Sam - Did you hear the weird report on the evening news? A bunch of alligators are living in the basement of a department store.

(Birner & Ward 1998)

(31a)와 같은 도치문의 사용은 전치요소와 후치요소가 모두 신정보로서 도치문의 상대적인 정보상태의 제약을 여기지는 않으나, 대화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1a)는 담화상 신정보를 제공하는 전치 구성성분이 문맥상 이전 담화와 연결 관계를 가지지 못하여 비문이다. 그러나 문학작품 속에서는 시공간적인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청자나 독자의 기대감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도치문도 전치문처럼 전치와 후치 구성성분들 사이의 담화상태에 민감한데, 전치된 구성성분은 이전 문맥에 연결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Prince(1992)는 이전 담화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화자가 문맥으로부터 청자가 추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추론 가능한' 요소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추론 가능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경우 도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 (32) a. She got married recently, *and at the wedding was the mother, the stepmother and Debbie.*
 b. Labor savings are achieved because the crew is put to better use than cleaning belts manually; *also eliminated is the expense of buying costly chemicals.*

(Prince 1992)

(32a)에서 the wedding은 누군가가 결혼한다는 언급으로 married에서 추론 가능한 요소이다. (32b)는 eliminated가 추론 가능한 정보인데, 왜냐하면 labor saving이라는 말로부터 무엇인가(노동력)가

제거되었다는 개념이 추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도치의 다양한 ‘실용’, ‘소개’, ‘강조’, ‘연결’등의 담화 화용론적 특징을 이전 담화와 의미적 연결관계를 갖는다는 연결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보았다.

4. 차이점과 공통점

전치와 도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전치구조와 도치구조 사이의 다양한 특성들을 일반화시킬 수는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전치위치가 일련의 연결관계에 의해 이전 담화와 연결되는 구정보를 위한 자리라면 후치된 위치는 신정보를 위한 자리가 되는 것과 같은 전치와 도치구조 사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찾아보는 것이다.

도치구조에는 위의 두 가지 일반화된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데 도치문에서 동사 앞 구성성분은 적어도 동사 뒤 구성성분에 의해 나타나는 것보다 담화상 친숙한 정보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장 내에서의 위치(전치/후치)와 담화상의 친숙성(구/신정보), 담화의 정보상태(절대적/상대적)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치와 도치구조 모두 담화내의 친숙성 정도뿐만 아니라 청자가 가진 그 담화내용에 대한 지식과의 친숙성 정도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장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친숙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전치문과 도치문에서 모두 전치요소는 후치요소보다 비교적 이전 담화와 친숙하다. 이제 전치와 도치를 비교 분석하여 전치와 도치의 일반화된 담화 기능상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치문과 도치문의 차이점은 전치문에서 전치된 구성성분은 반드시 담화상의 구정보를 표시해야 하나, 도치문에서는 전치된 구성성분이 비교적 담화상 구정보를 표시하기는 하지만 도치문에서는 절대적으로 구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후치성분이 담화상 신정보를 표시할 경우 신정보가 전치 위치에 오기도 한다. 즉 전치성분은 후치 성분보다 상대적인 구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33)과 (34)를 비교해 보자.

- (33) a. In a little white house lived two rabbits.
 b. # In a little white house two rabbits lived.
 [discourse-initially]
- (34) a.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ittle white house. In
 the house lived two rabbits.
 b.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ittle white house. In
 the house two rabbits lived.

(33a)에서는 전치보다는 도치구조가 가능한데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전치된 구성성분과 후치된 구성성분 모두 담화상 신정보를 표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3b)와 같은 전치문에서는 전치성분이 항상 담화상 구정보를 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부적절하다. 만약 (34)에서처럼 the house가 이전에 언급된 구정보라면 전치문과 도치문 모두 가능하다.

도치문에서 전치된 구성성분은 담화상 구정보를 상대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전치문에서는 절대적으로 구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제화의 기능이 도치문에 적용될 수 없고, 도치문 또한 단순히 주제화 규칙 적용 후 주어-동사의 위치가 바뀐 것으로 고려되어질 수 없다. 도치와 전치를 연관시켜 도치와 전치 모두 담화상 구정보를 표시하는 전치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일반화는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차이점(절대적/상대적)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치문과 도치문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there 삽입 문장과 도치문을 비교해 보자. 도치는 자연담화에서 상대적인 제약을 받고 there 삽입구문에서는 후치된 구성성분에 대한 청자의 정보상태에 따라 절대적인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도치문에서는 문맥상 동사 뒤 명사구에 의해 제시된 정보는 청자에게는 친숙할지라도 담화상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there 삽입구문에서는 후치된 명사구는 청자에게나 담화상으로는 절대적으로 신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 (35) a. I wonder what's going on. A police car is parked in

front of the Williams' house. *In the back seat is the mayor.* (Birner & Ward 1998: 168)

- b. I wonder what's going on. A police car is parked in front of the Williams' house. # *In the back seat there's the mayor.* [cf. The mayor is in the back seat.]

두 예문들에서 동사 뒤 명사구(후치된 명사구)는 청자에게 구정보이나 담화상 신정보이다. (35a)의 도치가 가능한 것은 후치된 명사구가 담화상의 신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인 반면, (35b)의 there 삽입문이 부적절한 이유는 후치된 명사구가 청자에게 구정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 학자들이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도치문과 전치문의 공통점 대해 살펴보자. 영어의 전치요소를 포함한 구조들은 일반적인 담화 계약을 받는다. 전치된 구성성분들은 추론 가능한 문맥적인 연결관계를 가진다. 전치문과 도치문에 적용되는 연결관계와 그 형태를 살펴보면, 전치나 도치 모두 상대적인가 절대적인가 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담화상 구정보를 표시한다. 그 연결관계는 전치된 구성성분과 어떤 두드러진 담화개체 사이에 '집합/구성체', '전체-부분', '종류-예', '큰것-작은것', '동일' 관계 등이 성립하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연결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날지라도 그 분포도에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 전치구조에는 '집합-구성체' 관계가 도치구조에는 '동일'관계가 더 자주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수한 전치문의 전치된 구성성분은 담화상 구정보를 표현하고, 도치문의 전치된 구성성분은 후치된 구성성분에 의해 나타나는 정보보다 상대적으로 더 친숙하기만 하다면 담화상 신정보를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도치문의 기능이 전치문의 기능과 통합되지 않는다. 기능적으로 볼 때 도치는 단지 전치에 주어-동사 뒤바꿈을 부가적으로 추가하는 것 이상의 다른 기능적 제약을 받는다.

5. 요약

본 논문에서는 문장의 어떤 구성성분을 앞으로 이동한 후 주어-

동사의 표준어순으로 나타나는 전치문과 동사-주어의 비표준어순으로 나타나는 도치문에 대하여 각각의 통사적 특징과 담화 화용론적 기능을 살펴보고, 전치문과 도치문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았다.

다양한 구성요소의 이동에 따라 명사구 전치, 전치사구 전치, 형용사구 전치, 동사구 전치, 분사구 전치 등으로 구별되어 고려되어 왔던 다양한 전치문들을 주제화라는 하나의 통합된 규칙으로 설명하였으며, 모든 전치 구성성분은 현 담화를 이전담화에 연결시키며, 이전 담화로부터 주어진 요소임과 동시에 현 담화의 틀을 제공한다. 는 점에서 그 문장 또는 그 담화의 주제라고 보았다. Ward(1990)가 논의한 동사구 전치의 네 가지 기능, 즉 독립적 명제확인, 양보적확인, 정도확인, 명제유보의 기능을 하나로 일반화하여 주제에 대한 논평을 첨가하는 ‘주제+논평’ 구조로 보았다.

전치와 후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도치문에서 전치되는 요소들은 문장 또는 담화 내에서 구정보를, 후치된 성분은 신정보를 표시한다. 즉, 문장요소의 담화상의 친숙도가 이동하는 구성성분의 문장 내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다. 도치문에서 전치된 요소는 문장 내에서 ‘실용’, ‘연결’, ‘강조’, ‘소개’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이를 전치성분은 후치된 명사구를 이전 담화에 명시적으로 나타냈거나 추론가능한 정보와 연결하는 ‘연결’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전치문과 도치문은 이전 담화와 어떻게든 연결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공통적인데, 전치문에서 전치요소는 절대적인 구정보를 표시하나, 도치문에서는 담화상 상대적 구정보를 표시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으로 화자가 발화시 전치시키는 요소는 그 요소가 청자의 지식 내에서 어떤 정보상태에 있다고 화자가 평가하는가에 따라 전치문을 선택할지 도치문을 선택할지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Birner, B. J. 1994. Information status and word order: An analysis of English inversion. *Language* 70, 233-259.
 Birner, B. J. and G. Ward. 1998. *Information Status and Noncanonical Word Order in English*. John Benjamins

- Publishing Company.
-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 Li, ed., *Subject and Topics*, 25-55. New York: Academic Press.
- Green, G. 1980. Some wherefores of English inversions. *Language* 56, 582-601.
- Prince, E. F. 1984. Topicalization and left-dislocation: A functional analysis. In S. White and V. Teller, eds., *Discourses in Reading and Linguistics*, 213-225. New York: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 Prince, E. F. 1992. The ZPG letter: Subjects, definiteness, and information-status. In S. Thompson and W. Mann, eds., *Discourse Description: Diverse Analyses of a Fundraising Text*, 295-325.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ard, G. 1985.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Prepo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Ward, G. 1990. The discourse functions of VP preposing. *Language* 66, 742-763.
- Ward, G. and J. Birner. 1994. A unified account of English fronting constructions. *Pen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 159-165. University of Pennsylvania department of linguistics.

박원경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우편번호: 110-745

전화번호: 02) 760-0246

E-mail: wk616@yahoo.co.kr

접수일자: 2002. 12. 27.

게재결정: 2003. 2. 26.